

【논문】

## 한국 근대 불교의 타자들: 사판승과 대처승의 퇴조

박재현

【주제분류】 동양철학, 불교철학, 한국불교, 선불교

【주요어】 근대불교, 이판승(理判僧), 사판승(事判僧), 대처승(帶妻僧)

【요약문】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당시 불교계의 주류였던 사판승과 대처승들이 점차 퇴조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근대불교의 성격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 불교계를 이끌었던 선학원(禪學院)의 설립배경과 동기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선학원은 한국불교의 핵심적인 기구였는데, 그 주도 세력이 사판승과 대처승에서 이판 비구승으로 재편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선원의 방함록(芳函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선원의 운영진 역시 개설되던 초기인 1900년 무렵에는 사판과 이판이 외호반(外護班)과 내호반(內護班)으로 공존하는 구도를 취했지만, 점차 이판승 중심의 바뀌어 갔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핵심적인 추동력은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이었고, 광복과 더불어 보편적 가치로 채택된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사회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1950년대에 단행된 불교계 정화(淨化)는 이러한 변화의 정점이면서 또한 결말이었다. 한국 근대 불교가 이판 비구승이 주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으로써, 승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엄격한 수행 풍토가 오히려 퇴조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낳았다. 또 재가 신자와의 연대 및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사회의식 있고 수준 높은 종교생활을 기대하는 젊고 유능한 재가자들이 불교에서 급속히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 I. 머리말

기존 불교학의 연구대상은 대체로 이른바 큰스님이나 대선사의 이력과 사상적 특징을 밝히거나 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원전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방식이 주조를 이루었다. 여기서 큰스님이나 대선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인물들은 대개 이판비구승(理判比丘僧)이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판(理判)과 사판(事判) 혹은 비구(比丘)와 대처(帶妻)의 경계는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리(理)와 사(事)의 영역이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지지 않고, 대처 문제 역시 혼인한 시기가 출가 전이나 후냐의 문제와 호적상의 결혼과 사실혼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시기에 들어 대처 여부가 사문(沙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했다. 이 잣대가 얼마나 공정하고 유효한가 하는 점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새로 생겨나고 그것을 들이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타자화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판은 더욱 이판스러운 모습으로 남기 위해 사판스러운 행적들이 세탁되었고, 사판은 더욱 사판스러운 모습으로 폄하되기 위해 이판스러운 행적들이 지워졌다. 독신과 대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문제는 누가 남았고 누가 지워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와 역할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묻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출발한 이 논문은, 근대불교계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연구이다. 말하자면 근대불교의 ‘타자들’에 대한 연구이다. 많은 이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부류보다 뚜렷이 타자화를 감내해야 했던 사판승과 대처승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사판승이 모두 대처한 것도 아니고, 대처승이라고 해서 사판만 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비구 이판의 의식과 대적점에 있는 사판의식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 불교 타자들의 의식이 조금이나마 복원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 II. 선학원의 설립 배경과 동기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불교계 내부의 활로 찾기는 아무래도 선학원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선학원 창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던 1920년대 초반 이전에도 물론 조선불교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직화의 정도나 해방 이후 한국불교의 전개과정과 관련지어 볼 때 선학원을 중심으로 당시 불교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할 듯싶다.

선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조선불교의 수좌들이 선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조선불교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켜낸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오늘날 불교계와 학계에서 별다른 반성 없이 통용되어, 선학원 설립 동기를 놓고 대처승들이 득세하고 있는 불교계에서 한국 전통선의 부흥 내지는 비구승들의 수행 전통 진작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례로 선학원의 설립 동기에 관해서,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승려가 결혼하고 고기를 먹는 ‘대처식육’ 현상이 만연하고, 선풍(禪風)이 땅에 떨어졌을 때 비구승들이 계율을 지키고,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지적이 있다.<sup>1)</sup> 조계종교육원에서 발간한 『선원총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침체 일로를 걷는 한국 전통선의 부흥, 나아가 점차 왜색 불교화 되어 가는 폐단을 막고 전통불교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찾고 있다.<sup>2)</sup>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발간한 최근의 연구성과에서도 “중앙선원 안거

1) 김순석, 「일제시대 선학원 창설의 의미」, 법보신문, 906호, 2007. 6. 27.

2) 『선원총람』, p.992.

방향록은 선종 부흥의 실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료이며…선종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부흥의 기틀을 삼고자 했던 구체적인 운동”이라고 적고 있다.<sup>3)</sup>

선학원 창립이 선(禪) 전통의 부흥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이해의 저변에는, 선학원 창립에 가담한 인사들 가운데 근대불교계 비구 이판승을 대표하는 백용성과 송만공(宋滿空) 등이 있었다는 점과, 1940년대 이후 선학원에서 수좌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학원을 선 전통의 부흥과 연관지으려는 해석에는 지금 현재의 시각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한다.

선학원 창설 과정에서 한국 선 전통 부활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학원 창설에 개입했던 이들이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선’이 아니라 ‘조선’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선 백용성과 송만공은 1921년에 임제종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인데, 임제종운동에서 ‘임제종’이라는 명칭은 선 수행 전통으로서의 임제종을 함축했다기보다는 일본의 조동종에 대한 대항 개념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백용성과 송만공은 선(禪) 의식이 아니라 항일의식이나 민족의식에서 기초하여 선학원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선학원 창립을 처음 주도한 인사들이 분명 사판승들이었다는 점이다. 선학원 창설을 맨 처음 공론화한 이는 김남천(金南泉), 강도봉(康道峰), 김석두(金石頭) 세 사람으로 모두 포교사, 즉 사판승이었다. 선학원창설연기록(禪學院創設緣起錄)에 의하면 당시 김남천이 이천 원, 강도봉이 천오백 원 김석두가 이천 원을 회사했다. 또 재가신자 두 사람이 각각 육천 원과 사천 원을, 경성(京城) 신도들이 만 원을 모아 기탁함으로써 총 이만오천오백 원을 밀천으로 하여, 송만공과 백용성 등 당시의 대표적 이판승과 당시 전계화상이었던 오성월(吳惺月) 등과 함께 1921년 마침내 중앙선원을 개설했다.<sup>4)</sup>

3) 『선불장』, p.30.

1922년 3월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선학원 본부는 서무부(庶務部), 재무부(財務部), 수도부(修道部)의 3부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김적음, 김석두, 송만공이 이사(理事)로 선정되어 각 부를 관장했다. 그리고 지부에는 간사 2명을 두었는데 이들은 매월 오십 원의 봉급을 받았다. 그 다음해 제2차 정기총회에서 3부의 이사진을 기석호(奇石虎), 신환옹(申幻翁), 강도봉으로 변경하였고, 1924년 11월에 열린 제3차 정기총회에서는 이사진을 다시 강도봉, 신유옹, 한용운(韓龍雲)으로 변경했다.<sup>5)</sup>

선학원은 김적음에 의해 인수된 후, 1934년 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 개편되면서 초대 이사로 김적음, 김남천, 송만공, 오성월, 방함암을 선임했다. 선원의 운영체계 역시 서무부와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철저히 사판적 시각에서 짜였으며 수도부조차도 강도봉이나 한용운 등 사판승들이 담당했다. 이들은 조선불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판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판승을 선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렇듯 선원의 운영은 사판승이 담당하고 선수행을 지도하고 설법하는 역할은 이판승이 담당하는 것이 선학원의 초기 운영 형태였던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선학원은 사판승들이 주도하여 일제 사찰령의 영향권 밖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선불교를 도모하려고 창립한 것으로 보는 게 옳을 듯싶다.<sup>6)</sup> 선학원 창립에는 교학과 선 혹은 이판과 사판과 같은 수행적 동기보다는, 인사와 재정의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적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 선학원의 설립 동기는 선의 부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22년 선우공제회 출범 당시 취지문에 나오는 대로 ‘자립자활’(自立自活)과 ‘자립자애’(自立自愛)<sup>7)</sup>의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4) 『선원총람』, pp.997-998.

5) 『선원총람』, pp.992-1001.

6) 선학원 설립의 실질적 취지가 사찰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선원총람』, p.997).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비구승과 대처승의 비율이나 조선불교계의 급속한 대처화를 감안할 때, 수좌들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학원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25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파악한 통계에 의하면 당시 승려의 숫자는 비구가 6324명 비구니가 864명으로 총 7188명이었다. 이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독신 비구는 4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sup>8)</sup> 조선총독부는 1926년 11월 승려들에게 대처식육을 허용하고, 각 본사에 대처승도 본사 주지를 할 수 있도록 사법을 개정하라 지시함으로써 대처화는 가속되었다. 분명한 통계가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1930년대에는 당시 비구의 9할이 결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머지 1할에는 사실상 결혼생활을 도모할 수 없는 행자나 사미, 노승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sup>9)</sup>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짧게 잡아도 선학원이 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 개편되었던 1934년 12월 이전까지, 좀 더 길게 잡는다면 유교법회가 개최된 1941년까지 선학원을 주도한 세력은 비구이판승이 아니라 대처사판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학원의 설립 배경과 동기로 선의 부흥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 이판비구승의 선 의식을 부각시키는 것은 자칫 일부분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여, 당시의 사판적 문제의식을 부지불식간에 덮어버리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 Ⅲ. 선원의 법인화

선학원은 1922년 설립 당시부터 이미 사찰 없이 선원만 있는 구조를 취하려고 했지만,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외양은 분명 사찰이지만 행정적으로 절이 아니라 종교법인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일제 사찰령의 사정권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

7)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5, pp.3-4.

8) 김순석, 「조선불교선종의 창종」, 법보신문, 918호, 2007. 9. 26.

9) 김광식, 「불교근대화의 노선과 용성의 대각교」, 2007, p.439.

다. 사찰령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일단 제도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선학원은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고 법인관리선원은 선학원이 활로를 찾는 방법으로 강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총람』에는 1935년부터 1943년까지 전국 선원의 현황이 집계되어 있는데, 1935년 첫 해에 지방에 6곳의 법인관리선원이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범어사 금어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수덕사선원, 도리사선원, 대승사선원, 정혜사 능인선원 등이다. 이후 법인관리선원은 1942년까지 전국적으로 10곳 내외로 분포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관리선원의 경우는 선학원 지점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므로 해당 사찰과는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범어사 재산의 일부를 금어선원을 통해 법인재산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선원으로 옮겨진 재산은 총독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 없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인관리선원과 일반선원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일반선원은 해당 사찰에 소재하고 있는 수행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선원 자체를 떠받치는 하부구조를 따로 둘 수 없고 선원은 단지 사찰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 이들 사찰은 일제의 사찰령 아래 있어서 사찰의 인사와 재정 사안에 대해 총독부의 인허가를 거쳐야만 한다.<sup>10)</sup> 따라서 일반선원은 그 구조상 선 수행에 전념하는 것밖에 다

10) 사찰령(전문 7조)은 1911년 5월 29일에 총독의 인가를 거쳐, 6월 3일 제령 제7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총독부령 제 83호로 사찰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함과 동시에 사찰령시행규칙(전문 8조)을 총독부령 제84호로 반포하였던 것이다. 사찰령은 한국불교의 사찰의 병합·폐지·이전, 운용·목적, 운영 내규, 주지 임면, 재산처분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의 수립·변경과 운영의 책임자로 조선 총독을 정하였음은 물론이었다(김광식, 『백용성스님과 일제하의 사찰재산·사찰령』 참조).

른 운신의 여지가 별로 없을 뿐더러 애초에 다른 목적이 있지도 않다. 1925년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조선승려수선제요』(朝鮮僧侶修禪提要)에 의하면 당시 56곳의 사찰에 선원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곳들이 모두 일반선원의 형태로 운영되던 곳들이다. 당시 이들 선원의 불교사적 의미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지는 하지만, 참선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것밖에 별 다른 것이 없다.

아마도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전국의 사찰 운영자들은 사찰령 속에서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사찰 재산의 일부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선학원에 법인 운용비용을 분담하면서 활로를 모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사찰령 당시에 도 각 사찰들은 엄청난 재정을 총독부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유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1930년대 전반기 사찰경제의 파탄, 엄청난 부채 발생, 주지 전횡으로 사찰재산의 소모 및 매각 현상이 나타나자 사찰 재정에 대해 총독부의 감시와 감독은 강도를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sup>11)</sup>

사찰령에 대한 당시 조선불교계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뉘었다. 먼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불교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긍정적 입장이 있었는데, 대개 교단 지도부인 본사 주지들이거나 관변 지식인층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원 용주사 주지였던 강대련과 통도사 주지였던 김구하, 전등사 주지였던 김지순, 불교계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던 이능화 등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이들은 주로 자주적 성격이 강하였던 임제종 계열의 승려들로 추측된다.<sup>12)</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거나, 총독부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사찰들을 중심으로 선원의 법인화를 통해 선학원으로 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적인 예로 직지사는 조선시대 8대가람 중에 하나였고 300여 곳의 소속 사암(寺庵)을 거느린 규모였으나 사찰령(寺刹令)이 제정되면서 해인사(海印寺)의 말사(末寺)로 전락했다. 또 범

11) 김광식, 『백용성스님과 일제하의 사찰재산·사찰령』 참조

12) 김순석,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2002, pp.46-49.



어사의 오성월은 일찍부터 한용운과 더불어 사찰령 폐지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찰들이 선학원과 의기투합하여 개별 선원을 재단법인에 복속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일반 지방선원의 경우는 선학원의 노선에 참여하기 꺼렸거나, 일제의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서 살 길을 모색할 자신이 있었던 사찰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선원 가운데 규모가 큰 것으로는 오대산 상원사선원과 금강산 마하연선원을 들 수 있다. 상원사선원의 경우 당시 선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되는데 안거에 참여한 대중의 숫자가 50여 명에 이르고 마하연선원도 20~30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선학원의 노선에 동참하지 않은 듯하다. 상원사선원은 1942년부터 선원 운영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방한암이라는 인물도 주목할 필요도 있는데,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선승이면서도 그의 사형 만공이 주도했던 선학원의 노선에 동조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상원사선원의 조실이면서 마하연선원의 조실로 있었다.<sup>13)</sup>

선학원은 일반 지방선원 가운데 일부를 법인관리 선원화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선학원 및 법인관리선원은 사찰령의 테두리 밖에서 활로를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하의 조선불교는 선학원을 중심으로 ‘자립자활’(自立自活)과 ‘자립자애’(自立自愛)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학원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항일과 민족의식을 전면에 내세운 수좌들의 입지가 높아진 데 비해서 사판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IV. 선학원의 성격의 변화: 비구승의 세력화

선원이 배타적 색채를 띠기 시작한 것은 이르게는 1934년 선학원

13) 『선원총람』, pp.1490-1499; 박재현, 「방한암의 선적 지향점과 역할의식에 관한 연구」, 2006 참조.

이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 개편되던 시기, 좀더 늦게는 유교법회(遺敎法會)가 개최된 1941년경으로 보인다. 초기 선원에서는 비구승인 수좌만의 정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 1899년 경허가 해인사에서 결사를 맺을 당시만 해도 승려와 재가자를 가리지 않고 결사장소도 제한하지 않는 등 개방성과 융통성이 있었다. 또 정혜 중심의 결사이지만 그 내용에는 미륵사상과 정토사상까지 개재해 있었다.<sup>14)</sup>

1914년 조선불교선교양중 30본산 주지회의소 제3회 총회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봐도, 전국 사찰의 염불당을 선당(禪堂)으로 개칭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규칙을 만들었는데 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선자(禪者)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正信心을 발하기 위하여 품행이 단정한 자.  
 具戒를 受한 증서가 有한 자.  
 불교전문 사집과 이상의 수학증서가 有한 자.  
 當寺에서 三夏 이상의 안거 증서가 有한 자.<sup>15)</sup>

위의 자격 요건 가운데 어디에도 대치나 사판승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1925년 백용성이 망월사에서 추진한 만일참선결사회(萬日參禪結社會) 역시도 선종 전통을 수호하고, 산속의 선원에서 수좌들만의 고립적인 절속의 형태로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결사한 것은, 산간에서는 도인을 배출하고 도회지에서는 선종 포교당을 세워 대중들과 교섭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sup>16)</sup>

재가자의 선원 참여는 일찍부터 제한되었던 것 같다. 1928년에 총독부에서 작성한 『조선승려수선제요』에 의하면, “백의자(白衣者)는

14) 고익진, 『경허당 성우의 도술이생론과 그 시대적 의의』, 1987; 김경집, 『경허의 정혜결사와 그 사상적 의의』, 1996; 김광식, 『근대 한국 선원 청규의 개요와 성격』, 2004.

15) 김광식, 『근대 한국 선원 청규의 개요와 성격』, p.235.

16) 김광식, 『불교근대화 노선과 용성의 대각교』, p.427.

좌참(坐參)치 못한다”는 규정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규칙조차도 적지 않은 선원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 유연하게 적용했다. 선원이라는 특성상 재가자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처승까지 제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당시 천은사 선방에서는 호적상 처자가 있는 자로서 처자가 왕래하거나 서신 왕래가 빈번한 자는 입참(入參)치 못한다고 명시하면서도, ‘단 발심납자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sup>17)</sup> 이러한 단서조항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출가와 재가의 이중성을 가지는 대처승의 어중간한 위치 때문이었다. 전국수좌대회에서 초학 수좌 지도를 위한 모범선원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던 금강산 마하연선원의 입방 규칙에도 자격을 갖춘 남자만 결제대중으로 받는다고 했는데,<sup>18)</sup> 자격을 갖춘 남자의 범위에 대처승이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관 비구승들이 본격적으로 대처승과 차별짓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1931년경에 포착된다. 이러한 계획이 실효를 거두는 과정에서 김적음(金寂音, 1900-1961)이라는 뛰어난 사판승의 역할이 주효했다. 1922년 창설 이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명맥조차 유지하지 못했던 선학원을 인수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이가 바로 그였다. 그는 의술에 조예가 깊어 침술과 시약처방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의 별호는 초부(草夫) 즉 풀을 가지고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어 주는 친구였다.<sup>19)</sup> 이런 활동으로 생겨난 자금을 선학원 운영에 투입했다. 그가 대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형적인 사판승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김적음은 아무래도 사판비구였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 위치는 사판대처보다 더욱 열악하다. 사판의 눈과 비구의 마음 사이에서 그는 늘 종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테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유예하

17) 『조선승려수선제요』, pp.273-274.

18) 『선원총람』, p.1464.

19) 『選佛場』, p.141.

고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언제까지나 용인될 수는 없었을 테고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사판의 눈을 거두고 비구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는 당대 이판 비구승을 대표하는 만공의 제자였다.

김적음은 1931년 1월에 선학원을 인수했는데, 그해 3월에 제1차 전국수좌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비구승들은 청정수행승을 위한 별도의 안정된 수행공간 설치를 건의했지만, 교무원에서 부결했다. 대부분이 사판대처승이었던 전국 본사의 주지들로 구성된 교무원측에서는 이러한 건의가 대처승들의 존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눈치채고 있었다.<sup>20)</sup>

김적음은 1931년 11월 8일 예전부터 인연이 있던 범어사에 경비 보조를 요청하였다. 범어사 본사 총회에서는 선학원이 요청한 매년 육백 엔의 경비에 대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운 까닭에 매년 이백 엔씩을 보조하기로 결의하였다. 김적음을 중심으로 한 비구승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10년 전 선우공제회 결성시에 들어온 토지와 신도들의 성금 그리고 새로 각 사찰에서 들어온 토지 등을 모아 1934년 초 무렵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동년 12월 5일자로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으로 인가를 받았다.<sup>21)</sup>

1934년 12월 30일에 개최된 전국수좌대회에서 발표한 선서문에는 이미 비구승들의 차별의식이 뚜렷하다. 수좌들은 자신들을 ‘조선정통 수도승’(朝鮮正統修道僧)이라고 자리매김했고, 대처승들을 “신문명의 폭풍에 쓰러져 간 다수의 승도들”로 폄하하면서 전통 사수와 교단 부흥을 기치로 내걸었다. 수좌들은 대처승들에 의해 청정한 교단이 무너져 사원이 가정화, 요정화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조선불교를 수좌 중심 체제로 새롭게 전환하려고 기도했다.<sup>22)</sup> 선학원은 이러한 의도를

20) 『選佛場』, p.142.

21) 김순석, 「조선불교 선종(禪宗)의 창종」, 법보신문, 918호, 2007. 9. 26.

22) 김광식, 「조선불교선종 종헌과 수좌의 현실인식」; 김광식, 「방한 압과 조계종단」, 2006, pp.165-167.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조직체로서 재정비되었던 것이다. 선학원은 당시 수행승단의 책원지(策源地)로서 은연중 선객들을 통솔하는 일종의 이판 중앙기관 같은 역할을 하였다.<sup>23)</sup>

선학원이 선리참구원으로 개편된 바로 그 다음 해인 1935년 3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다시 제3차 전국수좌대회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로 조선불교선종(朝鮮佛教禪宗)이 창종되었고 지금과 같은 종정-원장 체제를 갖추면서 비구승의 입지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종명을 선종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찰령 체제하에서 30본사 주지들의 회합체인 30본산주지회의원에서 채택한 종명은 선교양종이었기 때문이다. 교종이라는 명칭에는 이판과 사판의 구분이 없지만 선종이라는 명칭에는 이판 중심의 성격이 강하게 들어 있다. 또 여기서 채택한 중앙선원청규(中央禪院淸規) 가운데 제5조에서는 선원은 음주·식육·흡연·가요 등 일체 혼란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대처를 주로 한 대처승을 염두에 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sup>24)</sup>

이렇게 본격화된 비구승들의 세력화는 1941년 2월 고승 유교법회를 계기로 입지를 더욱 다져 나갔다. 그들은 민족과 호국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었고 불순하지 않았다. 이 법회를 주도한 인물은 박한영, 송만공, 하동산, 김자운 등이었고 이효봉, 이운허, 김적음 등이 준비했다. 그런데 이 모임에 당대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꼽히던 송만암(宋曼庵, 1876-1957)과 방한암이 불참했다. 선학원 창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면서도 연락조차 받지 못했던 오성월은 법회 중간에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처자(妻子)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당했다. 선학원의 기류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포착되는 부분이다.

23)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 p.115; 종단간행사위원회 편, 『태고종사』, p.255.

24) 이 대회에서 반포한 “선서문에 나오는 현실인식은 당시 불교 현실에 대한 완전 부정이었다. 수좌들이 완전 부정한 것은 승려의 대처식육과 선 및 수좌의 배척 등이라 하겠다.”(김광식, 『불교근대화 노선과 용성의 대각교』, p.427)

송만암이 왜 고승법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대강백이면서 선농일치를 몸으로 실천했는가 하면 학인들을 모아 놓고 선교율은 물론이고 역사 지리 측량법까지 가르친 당대 최고의 학승이면서 선승이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백양사에 호남고불총림이라는 종합수행도량을 건립한 주역이었다. 유교법회 불참 동기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내용이 그의 이력 가운데 보인다.

송만암은 해방 이후 교정으로 취임하자 비구와 대처의 갈등 속에서 승가를 교화승(대처승)과 수행승(비구승)으로 구성하는 과감한 조치를 제안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백양사로 내려갔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송만암은 비구승이 대처승과의 차별화를 통해 세력화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유교법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한암이 불참한 사실이나 참여자 명단에 한용운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1940년대 들어서면서 왜색 불교에 대한 저항이라는 깃발 아래 행해진 대처 추방 운동은 자연스럽게 대처승과 사판승 배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처하지 않은 사판승들은 힘겹게 버티면서 이판승과 더욱 강력히 결속했으리라 짐작되지만, 대처승의 퇴조는 곧 사판승의 퇴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판승들의 경우는 절대다수가 대처승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후 근대 불교계는 1945년 광복을 거치면서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동력에 힘입어 이판비구승 중심으로 더욱 급속도로 재편되었다.

## V. 근대 방함록을 통해 본 사판승의 위상

선원에 방부를 들이기로 한 수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들의 명단은 방함록(芳啣錄)에 기재된다. 그리고 안거 참여자들에게는 모두 각자의 소임이 정해진다. 조실(祖室)은 선원 전체의 정신적 최고 지도

자 역할, 선덕(禪德)은 선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역할, 입승(立繩)은 대중을 통솔하는 지휘 장교 역할, 화대(火臺)는 군불 담당, 채두(菜豆)는 부식 담당 대중 이런 식으로 나뉘진다. 이렇게 역할을 적은 용상방(龍象榜)이 벽이 걸리고 자리가 정해지면 안거에 돌입한다. 용상방의 내용은 선원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참선수행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원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외곽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을 외호반(外護班)으로 통칭하는데 참선 수행보다는 선원의 운영과 물질적 지원을 담당한다. 명칭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외호반에 해당하는 소임은 주지(主持), 원주(院主), 화주(化主) 등이며, 참선 수행에만 전념하는 수좌들인 내호반(內護班)과 함께 용상방에 나란히 등재된다. 이들 소임은 대개 용상방의 끝자리에 있어서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사찰과 선원이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소임이다.

선원이 개설되던 초기만 해도 외호반의 위상은 만만치 않았다. 용상방에서 직책을 나열하는 순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용상방은 본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직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우측에는 이판인 내호반을, 좌측에는 사판인 외호반을 적었다고 한다. 1928년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승려수선제요』에는 당시 조선에 50여 개의 선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유점사 용상방의 오른쪽에는 내무원(內務員)을, 왼쪽에는 외무직(外務員)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기 선원의 전형적인 용상방 모습이었던 것 같다.<sup>25)</sup>

이렇게 내무원과 외무원을 용상방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놓게 되면 내무원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회주나 조실이 내무원을 총괄하는 자리가 되고, 외무원의 첫 번째 자리인 주지나 원주는 외무원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유점사 용상방에서 내무원에 해당하는 소임은 회주(會主), 입승(立繩), 지전(持殿), 간병(看病)이고 외무원에 해당하는 소임은 원주(院主), 별좌(別座), 공사(供

25) 『조선승려수선제요』, pp.252-253.

司), 부목(負木)이다. 그리고 내무원에 해당하는 이들은 직무와 참선을 병행한다고 되어 있고, 외무원의 경우는 선중이외(禪衆以外)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외무원은 참선수행보다는 선원운영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유사한 형태가 1925년 백용성이 발기한 만일참선결사(萬日參禪結社)에서도 발견된다. 당시 결사의 진용도 내호법반(內護法班)과 외호법반(外護法班)으로 나누어 소임이 배정되었다. 내호법반은 선실(禪室) 내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외호법반은 사무(寺務)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내호법반은 입승(立繩)과 유나(維那)에서 봉다(奉茶)까지 모두 16가지 소임이 배정되었고, 외호법반에는 원주와 별좌에서 부목까지 모두 8가지 소임이 배정되었다. 여기서 드러난 성격은 여타 청구보다 그 조직 즉 내외호법반의 역할이 구체적이라는 점이다.<sup>26)</sup>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표준적인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선원은 외무와 내무 혹은 외호와 내호를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라도 이에 준하여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유점사 방함록이나 백용성이 주도한 결사의 진용은 지극히 표준적이며 구체적인 형태이고, 당시 선원에서는 대체로 소임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뿐 용상방에 외무원과 내무원을 굳이 나누어 적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나열한 경우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그 단적인 예로 1902년에서 1908년까지 해인사 퇴설선원의 용상방을 보면, 원주나 화주가 내무원 직책인 열중보다 용상방의 오른쪽 앞자리에 위치한 경우도 볼 수 있다.<sup>27)</sup> 또 신계사, 백담사, 석왕사 등의 선방에서도 원주가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 신흥사 선방에서도 같이 오른쪽 첫 번째 자리에 배당되어 있는 경우도 목격된다.<sup>28)</sup>

26) 김광식, 『근대 한국 선원 청구의 개요와 성격』, pp.238-241; 적멸, 『근현대 한국선종교단에서 제정된 청구에 관한 고찰』, pp.195-203 참조.

27) 『근대선원방함록』, pp.43-56.



도리사 태조선원의 경우에도 1930년 동안거 용상방에는 오른쪽부터 주지(主持)－입승(立繩)－선덕(禪德)의 순서로 적고 있다. 그리고 1946년 동안거와 1947년 하안거 두 차례에 걸쳐 또다시 주지가 용상방의 오른쪽 첫 자리에 배치된 경우가 보인다. 주지 직책은 방함록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올라 있는 경우에도 원주나 화주와 함께 용상방의 왼쪽 끝에 기재되게 마련인데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적어도 이관 중심으로 용상방이 작성되지는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외무원과 내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나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용상방의 소임 순서가 서열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한다. 선원의 지도급 인사가 화장실 청소 소임을 맡아 모범을 보였다는 일화도 심심찮게 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에 속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이다. 조실 혹은 조당으로 시작되는 용상방의 소임 순서는 곧 선원 참여자의 위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sup>29)</sup> 상관없다는 것은 그래야 한다는 당위적 선언일 뿐이다. 화장실 청소 소임인 정통(淨桶)이나 야채 다듬는 소임인 채두(菜頭)가 용상방의 첫 자리에 오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래 의도야 어쨌든지 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옛날의 글쓰기 방식을 염두에 둘 때, 용상방의 오른쪽 자리가 왼쪽 자리보다 웬지 높아 보이는 위계의식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게다가 위

28) 『조선승려수선제요』, pp.254-262.

29) “청규에 나타난 직책은 총림사회의 수행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초기의 소임(직책)에서는 소위 말하는 상하계급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후대에는 직책의 의미가 변질되어 하나의 신분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즉 그 소임(직책)이 끝나도 대중 속으로 돌아가 대중과 함께 수행하지 않고 따로 별채에 기거하면서 전직 유나(장주, 감원 등)로서의 권리(의전 및 시봉 등)를 누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원경, 『古淸規의 정신과 의의』, 『승가교육』, 5, 2004, p.187).”

무원과 내무원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내무원의 총괄하는 자리는 곧 의무원까지 총괄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용상방의 소임을 요즘 글쓰기 형태처럼 위에서 아래로 나열해 보면 그러한 위계의식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특히 1940년대를 지나면서 외호에 해당하는 소임을 점차 선원의 수좌들이 직접 맡게 되면서 내호반이 외호의 일을 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외호반 역할을 담당했던 대처승이나 사판승 그리고 속인(俗人)들의 입지는 줄어들었고, 이판승들이 선원 운영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근대 한국 선원에서는 사판화주승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거나 배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원을 개설한 사찰에서 선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선원에서 별도의 화주를 둘 필요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화주가 선원 운영의 주체에서 밀려나 역할은 있었으나 이름은 올리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근대 한국의 선원은 1950년대에 즈음하여 이판승 중심 체제로 편성되었으며 사판승의 역할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선원은 일반 사찰과는 달리 출세간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그러한 성격이 또 선원을 유지하는 자존심이며 힘이다. 따라서 선원이 이판승 중심 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은 그것의 종교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다. 선원에서 외호반을 배제한 것은 이러한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선원이 사회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와 점차 수도원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선원이 이판 중심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사찰은 사판 중심의 체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초기 선원의 청규나 규약에, 선원 참여자는 사중(寺中)의 일에 관여치 못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 근대의 선원을 주도한 인물들은 사찰의 운영에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찰이 지금과 같은 수도원 분위기를 강하게 띠게 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VI. 선원 운영 방식에 대한 다른 목소리

출가한 지 25년째 되던 1912년에, 백학명(白鶴鳴, 1867~1929)은 변산의 월명암에서 공안집(公案集)을 뒤적이다가 “만법과 더불어 짝을 짓지 않는 자, 그는 누구인가”[不與萬法爲侶者是甚麼]라는 글귀에서 책을 덮고 더 읽어내지 못했다. 만법과 짝하는 것이 죄다 망념이라면, 진심(眞心)은 그 너머 어디엔가 있을 것일진대, 진심을 진심이라 하면 그 또한 하나의 법이 되어, 진심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 마음 역시 망념에 불과한 것이었다. 1915년 이른 봄에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이 찾아와 열흘 남짓 머물렀다 돌아갔다. 훗날 가르침을 부탁드린다는 박중빈의 편지를 들고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학명은 2년여 동안 그를 맡았다. 이때 맡겨진 인물이 훗날 원불교 2대 종사가 되는 정산(鼎山) 송규(宋奎)이다.

1921년 겨울에 학명은 선학원 선우공제회 발기 모임에 앞장섰고, 다음해 3월에는 창립총회에 참여했다. 자강(自強)을 이루어야 조선불교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선우공제회는 출발하자마자 좌초하여 그대로 나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어중간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1923년 봄, 월명암으로 만해 한용운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장대 위에 꼳꼳이 서서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막막함을 토로했다. 만해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명은 하산했다. 당시 백양사 주지로 있던 송만암은 그에게 퇴락할 대로 퇴락해 있던 내장사(內藏寺)를 일으킬 것을 요청했다. 그는 중창불사를 단행하여 선원(禪院)을 새로 짓고, 흩어져 있던 부도(浮屠)를 모아 부도전에 안치했다. 선원에는 참선하는 대중들을 받아

들었고, 절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해 전답 80두락을 일구었다. 또 선원을 유지할 경제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 벼 40여 석을 수확할 만한 농토를 확보했다.

내장사 선원의 운영 규칙은 반농반선(半農半禪), 자선자수(自禪自修), 자력자식(自力自食)을 기조로 하였다. 학명 스스로 호미를 들고 일하면서 조사들의 화두(話頭)를 드는 모범을 보였다. 또한 학인들에게 범패(梵唄)와 창가(唱歌)를 부르며 선리(禪理)를 연구하도록 했다. 인근의 어린 학동들을 모아서는 천수경과 발원문을 가르치기도 했다.

내장사 선원에서는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재가자나 새로 출가한 승려들의 방부를 받아들였다. 이곳저곳 절집을 유목하며 세월만 보내는 일이 몸에 밴 출가자들은 가급적 배제했다. 조선 팔도에 선실(禪室)은 많았지만 대부분이 명예의 도구로 삼거나 이익을 낚는 도구로 삼는 곳이 대부분이고, 진정한 선객(禪客)은 봉황의 털이나 기린의 뽕처럼 희귀하다는 만해의 일침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었다.

내장선원의 일과는, 아침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좌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일이 없는 겨울 동안거에는 좌선시간이 좀더 늘어났고, 여름 하안거에는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사람과 생산의 관계는 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아서, 놀면서 남에게 의식(衣食)을 의존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길일 따름이라고 만해는 힘주어 말했다. 틀리지 않은 얘기였다. 도끼로 산의 덩불을 쳐내고 팽이로 돌밭의 돌을 골라내는 것과 마음자리를 가꾸는 일은 다르지 않았다.<sup>30)</sup>

---

30) 백학명에 대한 연구성과물이 많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김병학, 『백학명의 반선반농운동을 통해 본 불교개혁이념』, 한국종교학회 편, 『종교연구』, 2007; 박영학, 『일제하 한국 선 증흥 운동과 소통에 관한 연구: 백학명 선사를 중심으로』,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007; 김광식,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불교평론』 7-4, 2005; 김종진, 『근대 불교혁신운동과 불교가사의 관련 양상: 학명의 가사를 중심으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편, 『동양학』, 2004).

백학명에게 내장사 증건을 부탁한 송만암 역시 비슷한 유형의 선원운영방침을 견지했다. 그는 이판과 사판의 공존이라든지, 선농일치(禪農一致)와 선교겸수(禪教兼修)를 통한 철저한 수행과 수행자의 헌신 및 증생구제를 강조했다. 특히 해방 후 송만암의 낙향에 결정적 계기가 된 종조(宗祖) 교체에 대한 그의 생각은 주목할 만하다. 정화 과정에 비구승 측에서 조계종의 종조를 기존의 태고보우에서 보조지눌로 바꾼다는 입장에 대해 그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환부역조(換夫易祖)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 있어서도 아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조계종의 종조가 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 갑자기 지눌이 불거져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사판승이나 대처승에 대한 비구승측의 차별짓기 의도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구승들에게 지눌이라는 이름은 것발이었다. 송만암은 지눌종조설이 갖는 내용상의 타당성도 문제이지거니와 그 의도 또한 불순하게 보았던 것 같다.

당시 한반도의 동쪽편에는 혜봉(慧峰) 이용하(李龍河, 1874-1956)<sup>31)</sup>가 있었다. 그의 속명은 종국(鍾國)이며 백학명보다는 일곱 살이 적었다. 경주 이씨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한학에 능했다. 열여섯에 어미를 사별하고 무작정 상경했고, 상경한 지 2년 만에 진사과에 합격하여 고종 시절에는 정4품 벼슬까지 지냈다. 하지만 일제의 강점 과정에서 조선의 관리들은 이름을 바꾸고 숨어살거나 압록강 너머 북간도로 피신했다.

이혜봉은 1904년 30세의 나이에 상주 남장사에서 출가했다. 그는 통도사 보광선원 조실과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을 역임했으며, 선산 도리사 주지를 지내면서 대구 동화사 포교당과 의성 고운사 포교당, 서울 각황사 중앙포교사를 겸임했다. 해외 포교로 널리 알려진 승산이 그의 손제자이며 근대의 대표적 불교학자인 김동화 또한 그의 제자이다. 또 관응과 석정 등 근현대불교계의 대표적 선승들도 그에게

31) 이용하, 연관 譯, 『혜봉선사유집』 참조.

서 사사했다. 그는 일기장 뒷면에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배접하여 두었고, 남장사 보광전 천정에 태극기를 그려 두고 매일같이 해방을 발원했다.

그가 남긴 글 중에서 선원운영과 관련된 글이 유일하게 한편 보인다. 언제 작성된 것인지 확실치 않은 「김룡사 본말사 선원(禪院)에 관한 의안(議案)」은 그가 당시 선원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선원 운영방침에 대한 그의 생각이 분명한 어조로 피력되어 있다.

그는 선원이 비구수좌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원은 본래 본분납자만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신혼 학자를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했고, “결사(結社)가 아닌 바에야 선원이라 이름했으니 납자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자에 한해서는 사부대중을 따져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sup>32)</sup> 비구와 대처는 물론 일반 재가신자들까지 선원에서 받아들여 동등한 수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비구수좌들의 수행공간 확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온 당시 중앙의 선리참구원 운영방침과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봉의 유연한 사고는 선(禪) 전통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배타적 기준으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근대불교에서 선은 분명 이판비구승의 깃발이었고 그들의 자존심이었다. 이 깃발을 뒤흔들어서 선은 교학보다 한 차원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교학은 사판승이나 대처승들이 힘쓰는 분야로 여겨졌다. 이해봉은 근대불교계의 수좌들이 들고 나온 이러한 생각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과 교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시오입(開示悟入)이라는 건화문두(建化門頭)에서 근기에 따라 제창하신 불조의 어구(語句)가 천하에 두루 퍼져 선에서 교로, 교에서

32) 이용하, 「김룡사 본말사 禪院에 관한 議案」, pp.210-211.

선으로 서로서로 부양하여 봄바람이 부는 곳마다 춘성(春城)에 꽃이 만발하였더니, 어떻게 해서 불행히도 정법이 침민(沈泯)하고 교화의 문이 깊이 닫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인지라, 선과 교는 언제나 서로 떨어지지 못하는 금과 금색 같은 것이 아닙니까. 한 걸음 내디디어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면 선과 교가 병행되어야만 비교적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sup>33)</su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하는 비록 선원이라도 사교입선(捨敎入禪)보다는 선교겸수(禪敎兼修)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교학은 단순히 경전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화의 문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중생교화 혹은 구제의 문제를 담고 있다. 그는 “정안(正眼)과 정력(定力)을 증득한 스님은 못사람들의 희망이므로 본원(本願)의 의무로써 당연히 중생을 제도하는 길에 나가야 한다. 본말사의 공비로 교육을 받고 삼하(三夏)의 선정을 전수한 자는 반드시 포교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다.<sup>34)</sup>

근대의 내로라하는 선승 가운데 교학공부의 중요성과 중생 교화와 구제의 문제를 이렇듯 직접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경우는 별로 없다. 선학원을 중심으로 한 이판비구승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선원은 참선수좌들의 수행처로 기능해야 했고 오로지 그들만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적어도 1930년대 중반 이후 선원을 주도한 인사들의 기본적인 관점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봉은 선원 운영의 핵심적 직책으로 종주(宗主)와 입승(入繩)과 원주(院主) 등을 꼽았다. 이 셋은 솔의 세 발과 같이 하나라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sup>35)</sup> 이렇게 보게 되면 조실이 나 선덕 중심의 선원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된다. 특히 원주의 경우, 이판비구 중심의 선원에서는 절의 안살림을 맡아보며 선원의 뒷바라지나 하는 정도로 생각되었는데 그의 생각은 상당히 다

33) 위의 책, p.209.

34) 위의 책, p.212.

35) 위의 책, p.209.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다년간 서울 각항사를 비롯한 여러 포교당에서 포교사로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생각이 단순히 그랬으면 한다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용하는 선원을 수도원처럼 운영하려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혜봉 역시 송만암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 승려는 태고(太古) 선사로부터 내려온 순수한 임제종이며 임제종 중의 선교양종이므로, 선과 교의 종파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선종이면서 곧 교종이다. 그러므로 절마다 선교양종이요 승려마다 선교양종이므로 서로서로 인도하고 장려하여 선교양종의 근본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36)</sup>고 말했다. 이혜봉의 이러한 발언이 비구승 측의 종조교체설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배경과 맥락에서 대척점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 VII. 맺음말

임제강점기에 ‘임제종’이라는 깃발은 항일과 민족의식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1920년대 임제종운동에서 시발되었는데, 선학원과 조선불교선종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조계종으로 계승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항일과 민족의식에서 비구승의 독자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다시 말해서 한국 불교는 임제종이며, 선종이고, 또한 조계종이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이다. 이것은 차별화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으며, 누군가를 타자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임제종 운동이나 선학원 운동의 동기는 항일의식에 기초한 조선불교의 자립(自立), 자생(自生), 자활(自活)에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동기는 자연히 민족의식의 고취와 왜색 타파의 형태로 나타났고, 따라서 일본과 유연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관승들보다는, 식민지 통치 권

36) 위의 책, p.213.



력층과 대척점에 있던 이판 비구승들이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게다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판적 시각에서 개선되었던 조선불교의 발전 방안들은 비주류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었다.

선원 운영방식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판 비구승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처승과 재가신자들의 참여는 점차 차단되었고, 선원은 이판비구승만의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조선 오백 년 동안 추락할 대로 추락한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면모가 분명 있다. 하지만 이판승들이 이판과 사판을 겸함으로써 엄격한 수행 풍토가 오히려 퇴조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낳았고, 사회의식 있고 수준 높은 종교생활을 기대하는 젊고 유능한 재가자들이 불교계로부터 급속히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재현 /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연구교수

투고일: 2008. 04. 21.

심사완료일: 2008. 05. 27.

## 참고문헌

-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 민족사, 2002.
- 고익진, 「경허당 성우의 도술이생론과 그 시대적 의의」, 『한국미륵사상연구』, 1987.
- 김경집, 「경허의 정혜결사와 그 사상적 의의」, 『한국불교학』, 21, 1996.
- 김광식, 「불교근대화 노선과 용성의 대각교」, 대각사상연구원 편, 『대각사상』, 10, 2007.
- \_\_\_\_\_, 「방한암과 조계종단」, 한암사상연구원 편, 『한암사상연구』, 1, 2006.
- \_\_\_\_\_,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불교평론』, 7-4, 2005.
- \_\_\_\_\_, 「근대 한국 선원 청구의 개요와 성격」, 『승가교육』, 5,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2004.
- \_\_\_\_\_, 「백용성스님과 일제하의 사찰재산·사찰령」, 대각사상연구원 편, 『대각사상』, 4, 2001.
- \_\_\_\_\_, 「조선불교선종 종헌과 수좌의 현실인식」,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 김병학, 「백학명의 반선반농운동을 통해 본 불교개혁이념」, 한국종교학회 편, 『종교연구』, 2007.
- 김순석, 「조선불교선종의 창종」, 법보신문 918호, 2007. 9. 26.
- \_\_\_\_\_, 「일제시대 선학원 창설의 의미」, 법보신문, 906호, 2007. 6. 27.
- \_\_\_\_\_,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02.
- 김종진, 「근대 불교혁신 운동과 불교가사의 관련 양상: 학명의 가사를 중심으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편, 『동양학』, 2004.
- 박영학, 「일제하 한국 선 증흥 운동과 소통에 관한 연구: 백학명 선사를 중심으로」,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불교사상과

- 종교문화』, 2007.
- 박재현, 「방한암의 선적 지향점과 역한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편, 『철학사상』, 23, 2006.
- 법진 편, 『선불장(選佛場)』, 선학원·선리연구원, 2007.
- 불학연구소 편, 『근대선원방함록』,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6.
- 원경, 「古淸規의 정신과 의의」, 『승가교육』, 5,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2004.
- 이용하, 연관 譯, 『혜봉선사유집』, 성보문화재연구원, 2007.
- 적멸, 「근현대 한국선종교단에서 제정된 청규에 관한 고찰」, 『대각사상』, 10, 2007.
-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2000.
- 조선총독부학무국 편, 『조선승려수선제요(朝鮮僧侶修禪提要)』,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5, 민족사, 1996.
- 종단간행사위원회 편, 『태고종사』, 2006.

ABSTRACT

The Others in Modern Korean Buddhism:  
The Decline of the Administrative  
and Married Monk

Park, Jae-H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 of modern Korean Chan Buddhism with regard to the decline of the administrative and/or married monk. I survey the change process, the background, and factors leading to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eonhakwon(禪學院), an essential institution within Chan Buddhism in modern Korea. The initial factors that changed the administrative monk to a Chan practicing monk can be found in the Chan peaceful dwelling record(芳啣錄). External aid was on the decline, while the internal aid of the Buddha's teaching took the initiative.

This change was closely linked to the anti-Japanese movement and changes in the national consciousness. In addition, social consciousness and the eradic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played a decisive role after independence. While the decline of an administrative and/or married monk in modern Korean Chan chambers may not seem significant, there were implications for Korean religious history. A key consequence was that the Chan practicing monk's position improved but a noble Seon practice declined and an enterprising lay-person's religious life came to an end.

**Keywords:** Modern Korean Buddhism, Chan practicing monk, Administrative monk, Married monk